

## 강화식

### 기다림의 끝

하얀 머릿속에 여러 갈래 길.  
뜨거운 가슴은 하나,  
하나가 여러 길을 따라 간다.

떨어지는 것은 캄캄한 밤  
긴 밤이 낮설자  
가슴속이 타 들어간다.

시간을 쪼갬다.  
네 것이 아닌 내 시간표대로.  
그리고는  
맞지 않은 퍼즐을 하루 종일 맞춘다.

어제가 오늘로 내일도 오늘로……



서울 출생. 2007년 미주 《중앙일보》 시부문 당선. 한국미래문학, 문학  
세계 신인상 수상. 미주시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 김경용

### 이역(異域) 땅

인적은 끊겨 끊겨  
이역 땅  
매미도 울다 지친  
한나절  
빈 배 그림자 못 가에 출렁이네

구름도 바빠바빠  
지나쳐  
산마루 건너 하늘  
비었고  
내 가슴엔 외로움만 가득하네

그리워 끼이끼이  
울어도  
귀먹은 푸른 하늘  
무심코  
빈 이역 땅만 나 함께 흐느끼네



1998년 미주문학 시부문 신인상. 2002년 한국 백상 출판문화상. 마운트 버논 나자렌 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기호학의 즐거움』(민음사).

나 또한 가리 가리  
저 꿈길  
이역 땅 뒤에 두고  
팔만리  
먼 고향서 돌아보며 눈물지리

## 김내수

## 등정(登頂)의 투혼

한 땀 한 땀 수놓듯 거칠은 숨결 가다듬고  
 두 쪽 세 쪽 빠개질 듯 과동치는 심장 다잡으며  
 온 몸과 마음을 혈한(血汗) 다해 도전했던  
 숭고한 산악인의 투혼  
 정상 행한 등극(登極)의 길이었네

칼날차림 깎아지른 절박한 설암절벽  
 죽음의 그림자 드리운 험준한 산협계곡  
 눈보라 휘몰아치는 가팔막 비탈길  
 살과 뼈를 도려내는 된서리 삭풍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거슬러올라가는  
 암울한 시련, 전율의 난관을 불사르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훌쩍 넘어선  
 초인간의 기치(旗幟)를 천 번 만 번 다그쳐 세웠네

당당 도도히 흰구름 위로  
 하늘 높이 치솟는 백은빛 설산 봉우리에



전남 곡성 출생. 내과의사. 《문학세계》 2001년 시 당선.

검푸른 재님이 바람꽃이 곱게 피어나서  
못 산너울을 환희의 여울되어 흘러가네

그 소망의 꿈  
등반의 끝막을 기어이 다해내고  
승승 장원의 환성이 하늘 끝에 메아리쳤으니  
피켈(등산 지팡이)을 산정 정수리에 수직으로 꽂으리

땅과 하늘을 정복한 것  
초인간 새 생명의 승리  
존귀한 새 영혼을 영그는 등선(登仙)의 길이었네  
네 이름 각인한 돌표말을  
그 산정 억수리에 영원토록 세워두리

김성수

## 능수버들

넷가에 휘늘어진  
능수버들 파란 숲에  
님이 보내는 약속인듯  
실실이 이슬비 내린다  
봄바람에 설레는 가지마다  
연두빛 그리움이 돌아나고  
줄줄이 드리운 빗살마다  
애절한 기다림이 반짝인다  
봄비에 머리 감는 능수버들  
내님의 어여쁜 모습이런가  
오늘도 진달래 꽃길로  
살며시 수줍게 오시는 듯

실버들 초록잎에  
이슬비 피어 나고  
물새 날아와 가지 휘여도  
내님의 꽃소식 아니다



제2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물새야 물길 타고 전해다오  
달빛에 띄우는 내 노래를  
산새야 숲길 열며 찾아다오  
님 오실 싱그런 산꽃 길을  
한껏 핀 파아란 능수버들  
내 님이 눈부신 꽃너울 쓴 듯  
내 품에 흘러도 내 사랑  
머얼리 피어도 내 님이다

## 김인자

## 후회

화분에 물을 주다가 보았네  
 물이 말라 비비꼬인 줄거리  
 바삭 종이 같은 이파리  
 서 있는 것 포기하고  
 부르르 떨리는 바람에  
 바닥에 누어버렸네  
 이제 물을 주어도  
 낙버린 희망  
 흘러가 버린 강물  
 창공의 어디에도 빈 공간  
 잡히지 않네  
 티눈같이 박힌 장면  
 각막으로 조여오고  
 백색과 흑색의 다툼만 살아남아  
 이원의 좁은 골짜기를 지나는  
 현기증이 엄습하네  
 햇빛에 칼날같이 반사하는



서울 출생. 이대 약대 졸업. 월간 《문학세계》 등단. 저서로는 시집 『심안으로 보는 길』이 있다.



투명하게 얼어버린  
툭 떨어지는  
세월의 주름  
바람에 흔들리네

## 박경호

### 복사용지에는

인터넷을 연다  
색색의 광고가 화면에 난무한다  
상혼(商魂)의 피 뿜는 유혹들이  
파도처럼 공간을 덮치고 있다

시어(詩語)들이 툭툭  
고개를 내밀며 매달린다.  
나를 사가세요  
나의 시를 사가세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  
매달린다.  
몸뚱이가 아닌 순정이라고.

나는 못 이긴 척  
그녀의 순정을 사서  
옆구리에 끼고  
복사기를 통해 빠져 나온다



경주출생. 시와 사람들 동인. 한국국제펜클럽 해외동포 신인 시부문 최우수상.

화장기 없던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  
복사용지에는  
커다란 혈안(血眼) 하나 부릅떠 있다.

## 배송이

### 파르망티에를 생각하며

파르망티에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헐벗었던 시절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에게  
희망이었던 감자를  
파르망티에가 프랑스에 들여왔다는 것을

멋진 거리 멋진 사람들이 활보하는 곳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두고  
굶주림에 신음하던 이상들은  
파르망티에로(露) 표시판에 갇혀버렸고  
변해버린 의식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어  
바빠진 눈동자를 비집고  
허망한 것들이  
빠르게 침투해 버렸다



강원도 삼척출생. 《창조문학》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노란 Mc 자에 세뇌 당하고  
코카콜라에 중독 된 사람들이  
배고픔의 눈물을 알지 못한 채  
가난해진 정신들은  
인스턴트 사랑에 빠져버렸다

부엌 한 귀퉁이  
승승 구멍 뚫린 비닐 백엔  
미쳐 먹거리가 되지 못해  
시들고 있는 감자들이  
눈을 뜬 채 신음하고 있다.

## 백선영

## 클릭Click 2

홀로 떠나온 너와 나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이면서  
 같은 순간에  
 같은 소리 같은 빛을 보며  
 날짜변경선에서  
 타임머신에 오른다

현재이면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시대 속에 웅크린 그림자들을 꺼내  
 적도의 태양광에 쏘인다

수직의 빛으로 정제(精製)된  
 우리의 열망에 떠오르는  
 삼차원의 블락(block),  
 평화라는 단어를 각인한다.



《한국일보》 신인상 시부문 입상,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 복영미

### 도시의 풀벌레

합창에 파트가 있듯이  
풀벌레 울음에도  
파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컷이 짓곳은 바리톤, 아니면  
고개 숙인 알토로 울음 삼키면

청아한 테너 아랫배에 힘주고  
명주실보다 가는 소프라노  
푸른 명이 됩니다

도시의 하루가 끝나는  
밤하늘 가득  
나 여기 살아 있소  
그래그래  
시멘트 바닥에 토하는  
삶의 은유



순수문학 신인상. 경희사이버대학 문예창작학과 재학 중. 미 동부한국 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치르르 카르릉

사룩사룩 뻘뻘뻘



송정룡

## 나는 매일 손녀를 뵈러간다

내 두 손녀가 이빨갈이를 하고 있다  
일곱 살짜리 손녀는 앞 이가 2개 빠졌고  
아홉 살짜리는 이빨이 3개나 빠졌다

손녀들은 나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온다.  
노란 스마일 마크가 가슴에 붙어있는  
귀여운 것들,  
나도 꼬옥 끌어안아 준다.

나이를 먹으니 저절로 삭더니  
환갑이 지나면서부터는 두서넛씩 빠져나간다  
환하게 웃으시며 하시던 말씀  
“세월이 내 이빨 빼가는구나”

90에는 완전히 들어난 잇몸  
합죽합죽 웃으시던 어머니 얼굴



대전출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창조문학》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지금 손녀들 가슴에서 웃고 계신다.

## 신덕재

### 고향백담(故鄕白談)

나는 빈 마음으로  
 하얀 테이블을 대한다  
 아내는 야채를 가지런히  
 접시에 담아 놓는다  
 세 개의 붉은 무  
 네 조각 오이  
 밝은 주황색 홍당무 한 뿌리  
 양미나리 댓 줄기  
 떨어낸 것  
 그리고 이 모두를  
 이십 분에 걸쳐 차근차근  
 씹어내린다

양미나리 맛은 씹쓸하다  
 오이 네 조각은 입안에서  
 차갑다  
 여치집 그 안에 넣어준



한국 외국어대학 영문과 3년 수료. 1986년 올림피 영문신인상, 1996년 미주문학 영문시 신인상. 현재 달라스 문학회 고문. 저서로는 2000년 영문시집 『한강 流流 목록』(뉴욕, Vantage Press)이 있다.

늙은 오이 한 조각  
 여치는 오이 속을 파먹고  
 힘에 넘쳐서 찌르륵 찌르륵  
 청신하게 울어대던  
 한 여름 아득한  
 하늘가

|

지금은 여치집을 보릿대로 엮는  
 청년도 없고 소년도 없고  
 사람도 떠난  
 고향의 땅  
 나는 나의 몸이 건강한  
 알카리가 되기 위해  
 차근차근 오이를 씹어  
 내린다 오이는 신장의  
 노폐물을 쓸어 내겠지.  
 푸른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한 여름 등실 뜯 구름을 보고  
 찌르륵 울던 여치의 삶 모양  
 미국을 건너내는 나의  
 삶을 위해

늙은 일본 의사는 고혈압이  
 심하면 그 증세가 심장에  
 압력을 주어 신장을 파괴한다고  
 경고한다  
 나는 심장은 괜찮아  
 칠십세 임의 은퇴를 하자면  
 아직 팔 년은 직장에  
 더 있어야 하고  
 그때 내 외아들은 대학  
 졸업 무렵이 되지.

## II

그런데 허리에 와닿는 무게와  
 압력을 견뎌야 하는 직업이,  
 직업병에 버틸려면  
 그렇잖아도 틈만 있으면  
 바뀌칠려는 미국직업 시장  
 방만한 <인권>의  
 비 인권지대인 미국직업 시장에서  
 백인과 흑인들  
 그들의 <힘겨루기> 재미에서  
 밀리는 한국사람들

나는 이곳 대학을 못 나온 탓일까  
 나는 이곳을 건디는 전문 인맥이 없는  
 탓일까,  
 나는 이곳을 건디는 주인인 <내>가  
 없는 탓일까  
 나는 이곳을 건디는 이웃인 <내>가  
 없는 탓일까

나는 양미나리 한 줄기를 찢어낸  
 푸른 심줄대를 천천히 씹어 내린다  
 양미나리 맛은 씹쓸하다  
 그 씹쓸한 맛은 쓸개의 담즙을  
 맛보며 깨어있던  
 동양의 경구가 머리에 배어  
 외신상담의 경세가  
 머리에 머무는 탓일까.

### III

쓸개의 물을 입가심으로  
 자신을 깨우쳐가던  
 이 나라 성현들과 조상 대대로  
 전하여온 동방의 예지가  
 아직 머리속에 번뜩이는 것일까

나는 은연 중 동방을 생각한다  
 양미나리 뗏심줄을 천천히  
 씹어 내린다

미국사람들의 그 요란한 웃음 소리를,  
 미국사람들의 그 요란한 음담패설을,  
 이기죽거리는 볼너울을 내뺄고는  
 무연한 표정을 짓는  
 씹쓸한 양미나리  
 푸른 쓴물을 무라의 쓴물을  
 대하듯  
 유대인이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한국인이 창조한 하늘님. 하늘님.

나는 질박한 희망을 건다  
 맑고 고요한 물 위에  
 수금과 비파를 타며  
 수연을 이끌고 푸르게 흘러가는  
 <생명>의 강가에서  
 아침을 대하듯  
 나는 불빛 없는 영혼의 흔들림 속에서  
 나는 내 안에서 타고 있을 또 하나의  
 예지의 흔들림  
 살아 생전 무명(無明)이었던

무명(無名)의 육신 속에

노쇠의 변경이었던 질병을  
율단 강가에서 목욕을 한다  
고난, 환희, 인욕, 희망은 물 위로 흐른다  
한 접시의 야채를 천천히 씹으며  
하늘님이 주신 생명의 음울을 듣는다



## 신 소피아

## 가을 여심(女心)

가을의 문턱을 넘었지만  
 초록 울타리를 어지럽게 태우듯  
 시름시름 앓아가던 생채기

고통을 껴안고 갈피를 잃어  
 하루를 채워가던 침묵이  
 삶의 마지막 행보를 열어  
 은빛 베일을 기다리는 여심에 갇힌다

담장 넝쿨을 싱그럽게 쏟아내고  
 순수하게 여문 푸른 돌레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에 할 말을 전하니  
 영혼 가득 채워진 부드러운 숨결이 신선하다

가을 문이 활짝 열리며  
 터지는 기쁨이 온몸을 덮는다



Fuller 신학 대학원 선교 목회학 박사 과정 중 2005년 한국 월간《문예사조》신인 문학상 수상. 재미시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시향” 카페 동인. 저서로는 사화집 『시의 향기』(공저)가 있다.

솜사탕 하늘이 더욱 깊어진 맛  
가을 숲의 초대로 들국화를 넘보다  
함박꽃 웃음을 터트린다

## 유봉희

## 그녀의 방엔 밀물과 썰물이 함께 흐른다

그녀의 9층 방 창문에서 바라보면  
 눈 높이 조금 밑으로 왕복 12차선엔  
 밀물과 썰물이 함께 흐른다  
 가까이 내려다보면 새들은 떠났는지  
 빈 새집이 소음을 이고 있다  
 먼 풍경은 매연에 지워지고  
 도심을 빠져나가는 느린 차들이 붉은 줄을 긋고 있다  
 우주 밖으로 멀어져가는 별들이  
 붉은 몸을 만들며 멀어지듯  
 떠나가는 것들은 붉은 줄을 만든다고 그녀는 말한다  
 하지만 더러 서풍 부는 날  
 창문은 만년설을 이고 있는 산 하나를  
 온전히 잡아 놓고  
 몇 년째 푸른 손만 내려놓고 있던 양란은  
 줄기를 올리고 몇 개의 몽우리를 매단다  
 며칠 후에는 꽃 방울을 터트릴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02년 《문학과 창작》 신인상. 저서로는 시집 『소금화석』(2003년), 『몇 만년의 걸음』(2006년), 『英譯 한국 현대시 99인선』(2006년)이 있다.

## 윤석훈

### 전신주

혼자여야 한다고  
 전화를 툭 끊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에-요?  
 굵고 짧은 간섭파들  
 에둘러 떠나는  
 일상이 끌고 가는 오후다  
 온몸 칭칭 묶여서도  
 혼자여야 한다고  
 전화를 또 끊는다  
 연결된 선마다  
 가슴 잇는 포대(布袋) 열어  
 쓸어담고 싶었으나  
 담으면 쏟아지는 허공에  
 구멍 숭숭 뚫린  
 늑골 내어 주고도  
 뻗뻗하게 혼자 서서  
 견뎌야 하는



1960년 강원도 양양 출생. USC 치과대학 졸업. 2003년 현대시문학 등단. 미주시문학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

그 남자의  
더디 익는 고독  
지상과 지하를 잇는  
숫나사로 박혀  
혼자여야 한다고오요-  
또 한번 전화를 끊으며  
세상 안에서  
세상 밖 들여다보는  
그 남자의  
가늘고 긴  
몽크의 절규 같은 목청

윤종길

# 떡을 굽는 아이들

세상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이 아직도  
 흙으로 떡을 만듭니다  
 하늘 한점 뜯어 씹어보는  
 뽀죽한 턱 밑으로 풀물이 흘러내리고  
 배꼽이 단추구멍으로 머리를 내밀어  
 빠알간 풍선이 됩니다.  
 어릴 적 내 배꼽을 꼭 닮았습니다  
 떡을 굽는 시늉을 하고나면  
 숯처럼 굵힌 손톱이 결국 그 떡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 다음은  
 하늘이 아이들 키만한 높이에서  
 빙그르르 돌아가고  
 아이들은 옛처럼 녹으면서  
 가시덤불 같은 세상 하나씩을 토해냅니다



1968년 관동대학 졸업. 1997년 열린문학(한국) 신인상 수상. 2005년  
 Dr. Amado Yuzon(UPLI/국제계관시인연합 창설자 및 초대회장) 기  
 념상 차하 (시 제목 Art of Life). 지평선, 한국시단 동인. 재미시인협  
 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 이성열

## 절벽

앞 집 정원에서 늘 부지런히 일하던  
 꽃다운 나이에 혼자된 아주머니  
 어느새 하얀 할머니로 변해 버렸네  
 할머니 되어 휠체어 타고  
 병원 응급차에 실려 가네  
 오랜 동안 집 앞에서 보이질 않네  
 검은 정장, 흰 장갑의 괴물들이  
 집 앞에 웅성거리며 모여드네

아주머니 아끼던 가재도구들이  
 야드 세일로 팔려 나가고  
 젊은 아들이 와서  
 남은 짐 보따리를 트럭에 실어 가네  
 아주머니 모습은 영영 보이질 않네  
 장갑을 낀 흰 손에 떼밀려  
 절벽으로 떨어져  
 영영 못 오나 보네



“APA” 우수 신인상 수상 등단, 미주 《중앙일보》 단편소설 당선. ‘진열  
 장의 시(Poetry in the Window)’ 상 수상. LA Poetry Festival 구성  
 위원,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역임. 저서로는 시집 『바람은 하늘나  
 무』, 『하얀 텃세』 등이 있다.

장효정

## 막고굴 속의 자유

수천년 세월이 접혀있는  
고요에 닿는 막다른 길  
해탈도 없이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선다.

살아서 닳던 마음의 번뇌  
돌부처가 되어 가슴을 닫고  
열반에 든 수많은 막고굴의 불꽃들

나비 한 마리  
시간의 벽을 뚫고 나와  
삶의 출구와 꿈의 입구를 나는 소리  
풀지 못한 깨달음만  
경문을 읽고 지나간다.

아득한 기억 저편의 시간 속  
하나의 막고굴에 나를 봉인한다.  
비로소



강릉출생.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한맥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저서로는 시집 『내가 나를 엿보다』가 있다.



내 안의 길만 따라 날을 수 있는  
자유로운 부유를 본다.

■ 막고굴: 실크로드의 바위산에 있는 굴, 돈황이라는 고을에 있다.

## 정국희

## 옷장을 정리하며

똑같은 자리에서  
 기회만 노리다 늙어 버린  
 줌 먹은 생을 놓고  
 힘든 결정을 내린다

제주도 신혼여행 때  
 호텔에서 며칠 묵은 게 그녀의 전부인  
 또 한번의 외출을 꿈꾸다  
 놓쳐버린 한 생을  
 오늘 마지막으로 꼬옥 안아 본다  
 어두운 공간에  
 쪽빛 하늘이라도 비칠라 치면  
 새털처럼 날아가  
 산을 품고 돌아 왔을 그녀  
 참으로 긴 세월  
 눈길 닿지 않은 구석에서  
 제 가슴 스스로 얼마나 문질러 댔으면



완도출생. 《창조문학》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시문학회회원.

우아한 자태가 이리도 닳아 버렸을까  
몸에 난 깊은 주름  
오랜 세월 많지도 허기졌었나 보다

어둠 걷히자  
나비 한 마리  
서툰 날갯짓으로 창문을 빠져나간다.

## 정문선

### 건반과의 이별

어머니 병석에 누우시고  
먼지 쌓인 피아노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며  
가져갈 수도 없는 하얀 건반이  
반쪽이었던 반음을 잃는다

나의 이민 역사와 함께  
곁에서 삶을 지탱해주던  
피아노

이별의 소나타  
빛을 잃은 노안(老眼)이 젖고  
손가락 여위어가는 노을  
소녀의 기도가 얼룩진다

건반마다 찍혀진 지문의 추억  
어린 제자들의 얼굴



진혜출생. 경희대영문과졸업. 《창조문학》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저서로는 시집 『그것은 촛불이었다』가 있다.

끝내 연주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곡들  
가슴속 파도가  
분수되어 솟아오른다

물방울 드레스를 걸치고  
절규의 춤을 추고 있는  
분수의 두 발바닥이  
이별의 아픔을 소리치고 있다

## 정어빙

### 비늘

나는  
뜨거운 여름까지 버티고 버티다  
껍질마저 주어버린 채  
보도 위에 뒹군다

빼만 남긴 시간은  
양팔을 벌린 채  
너의 발꿈치에 짓눌리어  
비틀어진 입술은  
지금도  
진실만을 토해낸다

여윈 햇살에도 바람을 타는  
비린내  
비위가 약한 간(肝)은  
어제 마셨던 공기마저 토해내고  
물레방아 돌려대는 냇물에



광주출생. 《창조문학》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혀를 씻는다

당신과 입을 맞춘 꿈은  
다시  
새 비늘을 만드는데.

## 정용진

### 귀거래사(歸去來辭)

나 이제 추계동(秋溪洞)  
 새 고향에 집을 풀고 살리라  
 한 때는 온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날뛰고 방황하였으나  
 이 모두가 헛꿈이요  
 헛일이로다.

마음을 펴려 하여도  
 펼 자리가 없고  
 선을 행하려하나  
 악의 뿌리가 너무 깊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험한 인생의 발을 갈면서  
 삶의 고귀함을 배웠고  
 이웃과 더불어 정을 나누며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지평선” 시인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회장 역임. 미주문학상, 한국크리스찬문학상 대상 수상. 저서로는 시집 『강마을』, 『장미 밭에서』, 『빈 가슴은 고요로 채워두고』, 『금강산』, 에세이집 『마음 밭에 삶의 뜻을 심으며』 외 1권.



동산에 해가 뜨면 일어나  
서산에 황금빛 노을이 걸릴 때까지  
땀 흘려 일하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애를 썼나니

그 어느 누가 나를 탓하며  
내 누구를 원망하라  
부귀를 원하였으나  
이 모두 부질없고  
공명을 바랬으나 허사임을  
이제 늦게 깨달았노라.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이 참 나의 시간이요  
오늘 내 모습이 참 나 자신이로다.

내가 남을 향하여  
웃음을 보내면  
남도 나에게 미소로 화답하고  
내가 남을 향하여 얼굴을 붉히니  
남도 나에게 화를 내는 구나.

나의  
진정한 고향은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여주읍 가업리(稼業) 50번지  
북성산(北城山)과 구곡산(舊谷山)이 마주보고  
연하천(煙霞川)이  
마을 심장을 굽이도는 황금들  
송진덩이 같이 찰진  
자채쌀이 풍년인  
청명한 땅이지마는  
하늘이 내게 명하여  
San Diego County Fallbrook(秋溪洞)에  
아브라함처럼 옮겨와서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우며  
시심(詩心)을 닦았나니  
이 땅 여기가 바로  
나의 새로운 고향이로구나.

나는 이 새 터전에  
인생의 닳을 내리고  
남은여생  
창작의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며  
후회 없는 삶을 엮으리로다.

내가 남을 탓하니

남도 나를 원망 하는 도다  
어허!  
이 모두가 빈 꿈이요  
허영에 찬 가식이로다.

하늘은  
땅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산천초목들은 단비를 맞으며  
춤을 추는 구나  
철따라 백화가 만발하고  
그 향기가 울안에 가득 하여라.

여름에는  
곡식과 과목에  
물과 거름을 주고  
가을에는  
주렁주렁 열린  
과일들을 거두어 들이며  
찾아오는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리라.

그러나 나는  
신록사(神勒寺) 종소리가  
여강(驪江)에 울려 퍼져

푸른 물굽이로 요동치고  
백자를 굽는 학동(鶴洞)의  
저녁연기를 잊을 수가 없구나.

어릴 때 별거벗고 미역을 감던  
고향의 정겨운 친구들  
이제는 머리에 서리가 내려  
하나 둘 이승을 떠나가고  
어린것들이 미루나무처럼 자라서  
눈앞에 가득하니  
이제 무엇을 더 바라며 원하랴  
참으로 가슴 벅차고  
감사가 넘쳐나네.

떠나온 조국이 하도 그리워  
문 앞에는 우리나라 국화(國花)  
무궁화를 심었고, 울 가에는  
산수유, 대추, 사과, 배, 밤, 자두, 포도, 앵두,  
석류, 감, 오렌지, 레몬, 자몽, 목련, 개나리,  
장미, 국화와 세한삼우(歲寒三友)를 심었도다.  
이들이 철따라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며 열매를 맺으니  
참으로 고향인 듯싶구나.

미주문협에서 문우들과 시심을 논하고  
오렌지 글 사랑 모임에서 후진들의  
창작지도에 힘을 쏟으니 이보다 더한  
삶의 보람이 어디 있으랴

나 이제 새 고향에 머물며  
미주의 문물을 더욱 익히고  
성경을 읽고, 공맹(孔孟)의 덕을 쌓으리라

날이 맑으면 과원에 나가  
과목을 다듬고  
날이 흐리면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고전을 읽고, 시를 쓰면서  
고금의 진리를 깨우치리니  
내 고향 여주인(驪州人)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李奎報)의  
시심을 닦기를 원하노라.

나 그동안  
한얼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심정으로  
시를 짓고 글을 썼으며

동포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꽃을 심고 과목을 다듬으며  
농작물을 길렀도다.

추계동산가에는  
봄에는 장미주가  
가을에는 국화주가  
숙성하여 향을 발하나니  
함께 나누어드세나

천명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의 육신은  
Rose Hills Memorial Park  
Adoration Meadow 3435-3,4에 쉬며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섬기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밤에는 은빛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별을 헤이고  
낮에는 태평양 넘어 떠나온  
조국을 바라보면서  
후예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조국과 미국과 이웃을 사랑하리라.

## 정찬열

### 누가 시인일까

이사 온 다음 해 뒤뜰에 심었던  
복숭아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않아  
베어버리자고 했더니  
아내가 펄쩍 뛰었다

저것도 목숨인디  
잘 크는 나무를 뭇뻘새 뜯금없이  
잘라버리자 하느냐고  
집안에 복숭아나무가 있으면  
여인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속설을 믿고 혹시 그러냐고  
기를 쓰고 말렸다

먼 산에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 올 봄도  
꽃망울 터트려 환한 봄소식 전해주는  
나무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생각하나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부문 입상. 남부한국학교 교장. 미주한국 문인협회 이사. 산문집 『쌍코뿔이를 아시나요』(2006년, 고요아침)

하마터면 생목숨 잘릴 뻔 했던  
너석의 눈에는  
누가 시인일까  
나일까  
내 마누라일까



정해정

엘캐피탄 캐년의 밤

고향을 두고온  
목이 마른 나그네들이  
오순도순  
모닥불을 피우는데

별 하나  
소리없이  
빗금을 그으며 떨어진다.

비록  
등뒤는 춥고 캄캄해도  
가슴가슴은 타닥타닥 불이 타

억울함도, 서러움도  
아픈 눈물도  
모닥불에 죄다, 던져  
태우는데



미주 《한국일보》 시, 미주 《중앙일보》 소설 당선. 한국 아동문에 문학상 수상. 현재 미주아동문학가협회 회장.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저서로는 창작동화 『빛이 내리는 집』

어디로 가고 있는가

덜커덩 덜커덩  
기인 화물 열차가  
밤을 쿵쿵 울린다.

갈길 너무 벅찬  
목마른 나그네들은  
옛시절  
흰 눈발 속을  
목썩 소리로 힘겹게 울어 썼던  
기차소리가 되살아나, 저마다  
가슴이 메인다.

또 별 하나 소리없이  
빗금을 그으며 떨어지는데.

## 조영철

## 헛것

너, 커서 뭐가 될래?  
 어른들이 물으면  
 사장님, 하고 큰소리 쳤었지  
 겨우 사장?  
 아니요, 장군이나 대통령 될래요.  
 이런 꿈같은 꿈이 팔랑거리며  
 철들어 갔었지

왼손은 소주잔, 오른손은 젓가락으로  
 상다리 부러져라 두들겨 패던 시절부터  
 장군은 사병으로 제대하고  
 대통령 사진이 걸린 동회서기는커녕  
 샴바느질 주인 노릇도 물 말아 먹은 지금은  
 안개 낀 시애틀 밤길에서  
 헛것만 발길로 툭툭 차고 있구나

헛것을 건드려보다가



부산출생.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서북미한인 미술인협회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헛것이 되고만 나,  
차라리 그 때  
시인이 되겠다고 대답했더라면  
후줄근히 물먹은 나, 꼬옥 짜서  
안개에 펼쳐두어도  
햇별이 찾아와 말리는 날 있을 텐데

## 조옥동

## 한 점 구름

빈들 눈 먼 바람  
 허수아비 아랫도리 스쳐 지나고  
 생 술가지 위에서 초롱초롱 눈을 뜬 바람은  
 죽은 듯 엎드린 바위에 목마를 타다  
 실개천 송사리 떼 이리저리 휘저어 놀곤  
 휘파람 불며 떠나는 늦가을 초저녁  
 나무 가지 헐벗은 어깨 위로  
 밤의 속살을 헤집고 내려오는  
 내 배넛저고리 한 자락  
 차가운 적막을 덮는다

간간히 언덕을 거슬러 올라서면  
 맑은 식혜 한 사발 삭혀 논 밤하늘  
 그저 잊히지 않는 기억들 한 덩이 떠돌아  
 포근한 아픔이 동행을 한다

물살에 흔들려도 지워지잖는 얼룩진 자리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현대시조〉, 〈한국수필〉 신인상. 제1회 재외 동포문학상 입상. 〈현대시조〉 2005년 ‘좋은 작품상’ 수상. 한국문협,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저서로는 제1시집 『여름에 온 가을엽서』 (1999년), 제2시집 『내 삶의 절정을 만지고 싶다』 (2007년)가 있다.

생명을 불태우고 남겨지는  
한 줌의 잿더미  
오늘의 불씨가 숨어 있다

## 조주현

### 오늘을 사는 별들

오늘을 사는 푸르고 빛나는 별들은  
이기심과 욕망으로 굽어진 허리띠를  
줄라매고 혼돈과 죽음의 어깨를 딛고  
깨어나 일어서라고 외친다

태양이 타는 태양을 안고 울며  
달이 미끄러 떨어진 별을 안고 울고  
하늘이 땅을 가르느 기침 소리에  
자연은 생체시계의 혼란으로  
인류의 미래 지구 전체의 생존을 고민하는데

별판 끝에 서서 돌아보는 이 순간에도  
생명은 타고 그 영혼 떨고 있는데  
우리가 했다는 일은  
핵폭탄 전쟁과 테러 밤낮 없이 배출되는  
죽음의 에너지 위에  
하늘만큼 높아지려는 욕망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 졸업. 1999년 한국일보 문예공모 시부문 입선.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Poetry Member.  
2006년 8월과 12월, International Library of Poetry로부터 Editor's  
Choice Award 2회 수상, 작품은 "Timesless Voice" 시집에 실림.

시체들 위에 담을 쌓아 스스로를 가두는  
광기의 옷자락이 춤을 추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었다

여기 빠르고 편리함에만 기대어 뒹구는  
허약하게 길들여진 돌하나 엘리베이터에 온몸 맡기고  
미안합니다 바빠서 인류의 미래 나는  
이것이 — 우리의 현주소라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한 그루 생명나무를  
심으려는 장한 의지로 깨어 일어나  
죽음의 에너지를 몰아내고  
생명 다독거리는 손길 모아  
지구를 살리고 창조 질서를 바로 잡는 이들은  
오늘을 사는 별  
현대인의 순교라 하리



## 차신재

### 동굴 속에서

너의 심장을 더듬는다  
한때는 불꽃으로 타던 열기가  
습기 찬 숨결로 가득해 있다

시커멓게 붙어있는  
세월의 껍질 그 속에서  
웅웅거리며 달려 나오는 묵은 노래  
고여 있었던 걸까

들어갈수록 으스스한 적막  
희미한 역광 아래  
깨어진 토기들  
퇴색한 사랑으로 여기저기 얹드려있다

한때는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며  
당당하게 사랑을 받았을  
모서리마다 닳아 문드러진 젊음의 잔해



강릉출생. 《심상》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그 일그러진 모서리에  
어이없이 심장을 베인다

희미한 빛의 동그라미가 아물거린다  
해초가 넘실거리며 몸을 감는다  
무덤처럼 가라앉은 침묵을 헤치고  
그렵고 반짝이는 노래가 들려온다

사랑은 그렇게  
다시오고 있었다.

## 추은진

### 가을 문턱

시월의  
수요일 아침.

로즈매리 꽃잎이 땅에  
와르르  
떨어져 있다.

거친 숨결이 스치고 간  
흔적 위로  
푸른 새 한 마리가  
퍼드덕 날아가고

떨어진 보랏빛 꽃잎 위에  
서리 맞은 바람이  
하얗게 서 있다.



《문학세계》, 《미래문학》 시부문 신인상.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만희

## 꽃망울

너의 아름다운 꿈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 마음 줄인 시간들  
 밝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걸 보았고  
 사랑이 모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실망이었지

꽃망울 터뜨리기 위해  
 태어난 너의 숙명이  
 후회하지 않으려는  
 인고의 땀줄을 끊고  
 이승을 거닐면서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의지

그래도 너는  
 진실 담긴 꽃잎 열어



1938년 경기도 화성 출생. 1974년 도미. 수필집 『가슴에 묻어둔 땃발』  
 발간(1997), 시집 『안개에 걸린 강』 발간(2004). 현재 애틀란타 문학  
 동인회 회장,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 회장.

아름다운 향을 뿜어내는  
내일을 기둘릴 줄 알고  
승엄한 천직을 식이는  
외로운 꽃망울